

전남 어업인들 ‘전북 산업 위기 극복 결의대회’ 개최

“생산 원가 상승과 유통 질서 회복 위한 단결” 촉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정책 변화와 협력” 강조

지난 9일 완도를 농어민체육센터에서는 ‘지속 가능한 전북산업 발전을 위한 어업인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고흥군, 여수시, 강진군 전북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산업 발전을 위한 어업인 결의대회 추진 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생산 어가와 이범우 부군수,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의준 도의원, 박성규 군의회 부의장, 군의원, 전남도 전창우 친환경 수산정책과장 등 유관 기관과 사회단체 관계자 어민 등 50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전북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완도군 전북협회 김광근 회장은 인

사말을 통해 어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생산 원가 상승과 외부적 요인, 일부 유통업체의 횡포로 인해 어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절박한 마음으로 모인 자리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단결을 촉구했다.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문제는 특히 큰 이슈였다. 일부 유통업체는 전복 어가의 약점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담을 요구하거나 전복의 크기를 낮춰 매입하는 등의 행위로 어민들을 구조적 적자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광근 회장은 “완도군이 추진하는 가두리 장어 사업 확대와 치어 입



식량 조절을 통해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전남 산업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 부의장은 격려사에서 전북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회고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바다 환경 개선, 치어 입식량 조절, 가두리 양식장 축소와 같

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전북 산업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남 어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3월 7일 정기총회에서는 가두리 시설 감축을 결의했다. 24일에는 신지면과 노화읍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8일에는 전남 관내 모든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완도군 주관으로 완도군 유통 3사와 전북 주식회사, 생산자 대표 주관으로 1차 간담회를 가졌으나 결렬됐다. 지난 7일에는 2차 협의가 있었으나 양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원도=이두시 기자

순천, 동천 물결 따라 보랏빛 꽃결로 물든다

버들마편초 식재... 지속적인 개화경관 조성



순천시는 그린아일랜드~동천변 사면에 6월부터 11월까지 보랏빛 꽃을 피우는 버들마편초를 식재하여 수변경관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직영 재배 및 식재료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들마편초는 꽃대를 잘라주면 봄부터 가을까지 오랜 기간 꽃을 피우는 다년생 초화로, 긴 줄기 끝에 이삭 모양의 화려한 보라색 꽃이 특징이다. 내한성, 내습성, 병해충 등에 강해 관리가 용이하며, 수변 생태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식물이다.

시는 직영 작업단이 파종부터 육묘, 생육관리, 식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예산 절감을

물론, 작업단의 기술력 향상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올해 1월 1차 파종을 통해 약 6만본의 버들마편초를 재배하였으며, 이를 동천변과 오천그린광장에 식재할 예정이다. 또한 2차 파종으로 8만 본의 모종을 추가 재배 중에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직접 재배와 인력 운영으로 예산을 아끼는 동시에, 시민들이 오랜 기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관 유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담양, 미래 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 이어져

공도협회 총무정 100만 원·산림조합 1000만 원 기탁



담양군에 인재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재)담양장학회에 따르면, 10일 담양군 공도협회 총무정(사투 전주석)에서 1백만 원을, 담양군 산림조합(조합장 송진현)에서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매년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도대회에 참가하여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담양군공도협회 총무정(사투 전주석)에서는 2021년부터 꾸준한 장학금에 관심을 가지며 훈훈한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담양=조승채 기자

광양,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검토보고회

241건 중 완료 31건·추진 중 54건·추진 예정 49건



광양시는 시청 창의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2025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검토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과 관련해, 부서별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소장 및 관련 부서장 등 5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2025년 시민과의 대화’는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1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됐으며, 건의된 사항은 총 241건이다.

건의 사항 담당 부서에서 해당 현장 방문 및 건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정확한 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한 결과, 건의 사항은 ▲완결 31건

(12.9%) ▲추진 중 54건(22.4%) ▲추진 예정 49건(20.3%) ▲장기 검토 53건(22.0%) ▲추진 불가 45건(18.7%) ▲현장 담판 종결 9건(3.7%)으로 집계됐다.

정인화 시장은 “시민과 소통행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피드백이 중요하다”며 “시민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건의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영암, 건강한 임신·출산·공동육아까지 뒷받침 한다

공동육아 또래모임 엄마·아빠 모집...모자보건사업도 대폭 확대

영암군민의 건강한 임신·출산에서 공동육아까지 영암군이 함께 한다.

민선 8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암’ 정책을 추진 중인 영암군(군수 우승환)이, 이달 14일부터 ‘공동육아 또래 모임 해피맘’에 참여할 가정을 모집한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가족들이 공동육아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은, 2회의 교육을 진행한다.

5월9일 ‘양육태도 코칭’, 같은달 16일 ‘기질과 성격검사’ 교육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이 교육을 계기로 프로그램 참여 30개 가정이 다양한 공동육아 모임을 만들도록 영암군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육아 또래 모임 해피맘에는 0~5세 자녀를 둔 엄마나 아빠 30명

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영암군보건소 전화(061-470-6538)로 하면 된다.

공동육아 모임 지원 이외에도 영암군은 영암군민의 건강한 임신·출산 등을 뒷받침하는 30종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영암형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6개월 이상 영암군민이고, 출생아를 신고한 산모가, 산후조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50만원의 지역 화폐를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임신 기능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영구피임 시술자 중 자녀 계획을 변경해 출산을 원하는 가정을 돕고 있다.

55세 이하 남성, 49세 이하 여성이 시술 내역, 진료비 서류를 제출하면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지난해 11월부터 확대해, 여성 1인당 25회 지원하던 시술비를 출산 당 25회로 변경했고, 나이 제한도 폐지해 이제 50세 이상의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 등에서 간편하게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보건소 방문없이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도 받아 볼 수 있다.

임신 전부터 기임기 남·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0~49세 기임기 남·녀이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데, 이 사업도 온라인 ‘e-보건소’에서 신청·청구할 수 있다. 영암군의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보건소(061-470-6538)에서 한다.

/영암=김형두 기자

신안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교육 추진’ 본격화

신안경찰서·전남여성가족재단·여성단체협의회와 협약 체결



신안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경찰서, 전남여성가족재단,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무에 따른 것이다.

교육대상은 일반 군민들로 본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폭력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예방사업 적극 추진, ▲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한다. 군은 교육대상자 모집과 장소를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신안경찰서는 캠페인과 현장 상담을 하며,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한다.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교육 홍보와 교육진행시 필요한 다과 봉사를 한다.

교육은 읍·면별로 1회 이상 회당 최대 100여 명 이내로 한다. 교육내용은 4대 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을 중심으로 하고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딥페이크, 스톱킹, 교제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 사례도 포함된다.

/신안=정경옥 기자

김희수 진도군수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위한 공감대 형성

진도군은 8일 김희수 진도군수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주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아이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알리고,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

순천, 농어민 공익수당
이달 말까지 추가 접수

순천시는 오는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 중 지난 1차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서 주소가 있고, 2024. 1. 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족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15,718명에게 1인당 60만원의 순천사랑상품권 약 94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6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이 올해 마지막 추가 신청인 만큼, 해당 농어민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